Guralp社는 버크셔주에 본사를 둔 영국의 대표적인 지진감시 장비 생산·운영업체로 이번 계약을 통해 터키 지진감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실시간 지진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게 되었다.

Bogazici 대학은 Guralp社의 지진감지기술 도입을 계기로 지진 피해가 빈번했던 터키의 조기 지진 감지기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출 계약에는 Bogazici 대학 소속 Kandilli 연구소의 실시간 지진감지 연구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표〉 ECGD의 구매자신용보증

○ 영국 수출자의 자본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수입하는 해외 구매자에 대해 신용을 공여한 영국 소재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 계약액 100만 파운드 이상, 대출기간 2년 이상, 계약액의 15% 이상의 선수금 수출계약에 한함 ○ 계약액의 85%까지(15%이상 선수금) 보증 ○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 국가위험도,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리스크 측정, 리스크 정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부과(최소 5,000 파운드 이상)

【송 영 호】

◈ 프랑스 Coface, 리투아니아 수출보험공사 LEID 인수

프랑스 Coface는 지난 3월 30일 리투아니아 수출보험공사인 LEID(Lietuvos Eksporto ir Importo Draudimas UAB)社를 인수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그동안 동 보험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오스트리아 내 자회사인 OKV Coface를 통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한 Coface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것이다.

Coface는 현재 58개국에 개설된 자회사 및 사무소 외에 50여개의 신용보험사 및 신용정보회사 파트너로 구성된 Credit Alliance 네트워크를 통하여 총 93개국에서 영업활동 중이며 전 세계 영업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번 LEID社 인수는 Coface가 발트 3국으로의 영업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Coface는 향후 동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기업정보와 마케팅 담당 자회사를 설립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Coface IGK는 발트 3국에서, Coface Intercredit는 중부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이다.

LEID社는 1997년 리투아니아 정부에 의해 수도 Vilnius에 설립되어 리투아니아 수출보험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 동 기업의 리투아니아 국내 신용보험시장 점유율은 44%에 달한다. Coface는 기존 LEID社의 지역 내 고객 업체들에게 직접 Coface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 지역 내에서 입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진 경】